

□ 인간의 인지적 오류를 찾아서

‘인간은 합리적’ 그 시대는 지났다

권준모
(교직과 교수)

현재 중요한 학문분야로 자리잡고 있는 인지과학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살아가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고 질문을 하였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대한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에 떠있을까, TV가 어떻게 나오는지 등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에 관한 것들이지 인간의 조그만 두뇌가 어떻게 그러한 신비스러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이해하는지를 궁금해 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이것은 아마 인간의 눈과 귀와 같은

감각기관이 외부로 향하여 있으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에 대하여는 관심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혹은 대부분의 인지적 과정이 우리의 자각 없이 일어나는데 기인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인간의 인지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의 부재도 인지과학에 관한 무관심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인지과학의 방법론적 혁신은 1960년대 컴퓨터의 개발로 시작되었다. 심리학자들은 컴퓨터를 통해 인간이 자극에 반응하는 반응시간의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대 빨간색으로 된 “빨간”이라는 글자와 노란색으로 된 “노란”이라는 글자가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고, 글자색의 색깔을 빠르게 언급하는 과제를 주었을

때, 노란색으로 된 “빨간”이라는 글자의 반응시간이 평균 3백msec 느리다면 이는 인지과정의 어떤 면을 현상하고 있는가? 심리학자들에게 반응시간의 측정은 인지과정 및 구조에 대한 과학적 추론을 가능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등장은 인간의 인지과정에 대한 입력-처리-출력이라는 정보처리적 시각을 제시하였으며, 인간의 인지구조를 컴퓨터에 비유하려는 시도들이 출현했다.

인간, 고장난 컴퓨터

그러나, 인지과학자들의 40여년간의 연구는 우리의 정보처리과정은 오류를 투성이며, 데카르트 이후 근대철학의 중심이 되었고 사회과학의 기본 가정인 ‘합리적 인간’의 개념을 버려야 할 때가 왔음을 알려준다. 인간이 합리적 존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인지적 오류를 제대로 알면 바로잡아주기 과정을 통한 조정도 가능하다

인간의 인지적 처리용량 한정 효율성과 정확성 동시에 추구못해

의 바램일 뿐이지 우리의 실상은 아니다. 인간은 오히려 고장이 많이 난 컴퓨터에 불과하다. 초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인지적 오류가 감정이나 욕구와 같은 동기적 요인에 의한다고 생각하였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하면 우리는 그 사람 행동의 원인을 그 사람의 좋지 않은 성격으로 쉽게 돌린다. 그러나, 신경질적 행동의 실제 원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귀인(원인을 돌림)을 통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부정적 판단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들의 주장은 사람들이 원인을 추론할 때 자신의 자존심을 유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동기적 편향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인지적 오류가 감정이나 욕구와 같은 동기적 요인에 의한다고 생각하였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하면 우리는 그 사람 행동의 원인을 그 사람의 좋지 않은 성격으로 쉽게 돌린다. 그러나, 신경질적 행동의 실제 원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귀인(원인을 돌림)을 통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부정적 판단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상적으로 사람들은 복잡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 인지적 전략을 구사한다. 즉 가능한 처리용량을 절약하여 사용하려는 인지적 구조화된 지식이 있다.

구조화된 지식의 틀

정보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은 역의 함수관계이다. 정확성을 추구하려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을 추구하면 정확성이 떨어진다. 진화적으로 인간의 인지구조는 정확성보다는 효율성이 생존가치를 획득하였다는 수없이 많은 정보가 감각기관을

통해 쏟아지는 세상에서 지나친 정확성을 추구하며 적응하기란 곤란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지체계의 내재적 속성으로 인하여, 인지적 오류와 편향들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이 되어버린 셈이다.

처리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식(schema)의 사용이 좋은 예이다. 우리는 외부세계를 입력, 저장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조화된 지식의 틀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어느 교수를 볼 때 그의 모든 정보를 입력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라는 기존의 지식의 틀, 즉 도식을 이용하여 지각하고 기억한다. 도식을 이용한 정보처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주는 대신 기억의 오류를 가져온다. 교수라는 도식은 일반적으로 권위적인 태도, 단정한 옷차림, 점잖은 말투, 안경, 책과 같은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들이 졸업한 후 그 교수의 모습을 기억해보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은 그가 실제로 안경을 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경을 끼고 있었다고 회상할 것이다. 만약 컴퓨터라면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입력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지 지식의 틀로서 저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바로 알면 조정 가능

이와 같이 인간의 지각, 기억, 추론, 판단, 평가 등의 인지과정은 수없이 많은 오류의 산물이다.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인간의 인지적 오류를 찾는 목적은 지적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바로잡아주기(debiasing)에 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번 이상의 인지적 판단과 기억을 하고 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만약 저울이 고장 났을 때, 몇 그램이 더 나가는지 혹은 덜 나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저울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인지적 오류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바로잡아주기 과정을 통해 조정해 나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현대사회와 불교의 재조명

소외된 인간 사회에 교량 역할해야

현대사회를 불교적 시각에서 어떻게 규명해야 하며, 또 그것에 관한 처방을 어떻게 내려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불교가 기본적으로 우주와 인생에 관한 근본적 진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 초역사적 초시대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가 인간의 내면적 진리 추구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하더라도 인간은 시공을 초월하여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존재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도 마찬가지로 불교가 시작되었던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사회 상상이

현실사회에 적용되어 왔으므로 그 나름의 독특한 사회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과학과 물질이 최고도로 발달한 사회에 살고 있다. 이제 우리의 생활은 말할수 없이 편의로워졌고, 어느 정도의 물질적 풍요도 누리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현대의 우리가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자문한다면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데 현대의 고민이 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가 지니는 근원적인 병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본래적인 ‘나’로부터 멀어지고, 급기

야는 스스로를 잃어버린 이른바 자기소외, 자기상실이라는 원천적인 병이다. 현대인은 새로운 물건, 새로운 기계를 좇아 밖으로 치달다가 존재와 생명의 원천을 상실해 버리고 만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대의 병은 어찌하여 근원한 것일까? 그 문제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물결이 일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야 한다. 거기서 우리는 인간관의 한 오류를 발견하게 된다. 서구의 휴머니즘은 ‘신으로부터 인간으로’의 자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신분주의의 반동으로 일어난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인간의 하늘같은 성품, 부처같은 성품을 저버린 채 감각·지각하는 표층의 인간을 인간의 전체인 양 착각하였다.

따라서 인류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불교가 풀어야 할 근원적인 문제는 잃어버린 자아, 소외된 자아를 회복시키고 단절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불교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생명의 원인으로 살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불교는 현대의 고뇌와 아픔을 함께 할 수 있어야겠다.

(김재은 기자)

학술단신

대학생 불교강좌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주최로 5월1일부터 6월5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에 불교강좌가 열린다. 서울 지역 대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강좌는 종로3가 대각사 1층법당에서 개최된다. 문의는 732-0239.

사랑에 대한 특강

서울여대는 ‘사랑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기독교 교육관 대학교회 본당에서 특강을 개최한다. 강의를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김중술전문의의 진행으로 5월7일 2시에 열린다.

건강 공개 강좌

인하대병원에는 3층 강당에서 4월 29일부터 6월24일까지 격주 화요일마다 10시부터 12시까지 건강공개강좌를 연다.

사이버 공청회 개최

숙명여대에서는 정치외교학과 96학번 주최로 ‘낙태, 과연 허용되어야 할 것인가?/학부세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사이버 공청회를 실시한다. 5월18일까지 열리는 공청회장소는 인터넷 <http://11www.democracy.or.kr>이다.

김용욱 교수 초청강의

연세대는 도을 김용욱 교수를 초청해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강연을 연다. 연회관 108호에서 5월 2일, 9일 이틀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생태주의와 여성운동

92년부터 진행되어 온 ‘생명운동 아카데미’의 10백 ‘생태주의와 에코페미니즘’이 개최된다. 5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30분에 한국불교환경교육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환경, 여성, 인간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참가비는 7만원이다. 문의는 765-6324/763-9098, FAX 766-6081

지역주의 재조명

서강대 대학원 총학생회 주최로 한국사회의 지역주의 논쟁의 대중화에 대한 세미나가 열린다.

시간	주제	강사	장소
5월9일 4시30분	지역주의를 바라보는 호남인의 또다른 시각(1)	윤한문	다산관D관101호
5월10일 2시	지역주의를 바라보는 호남인의 또다른 시각(2)	강준만	다산관101호
5월13일 4시30분	대담/지역주의의 재발견	황태현	다산관김민홍 지하101호
5월16일 4시	대담/97 대선과 지역주의	손호철	다산관이목회101호

正道경영·초우량LG

다시 받은 학생증

졸업후 2,3년 월급쟁이로 살다보면, 자기개발은 고사하고 학창시절 꿈과 개성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가슴에 남은 건 회의뿐이죠.

하지만 LG에서는 다릅니다.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이고, 전문 경영자를 키우는 HPL 과정과 글로벌 MBA 과정, 해외 석·박사 과정 등 수준 높은 인재육성 제도를 통해 당신을 큰 인재로 만들어 드립니다. 또한 국내 기업 최초로 실시하는 사내 벤처(Venture)제도를 통해 사업가의 꿈도 실현시켜 드립니다.

어때요? LG라는 대학원에서 월급까지 톡톡히 받으며 하고싶은 공부와 자기개발을 마음껏 하는 건!

